

## 세션 1: 해안공동체와 식생활과 문화: 생태문화적 접근

### 피지 연안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위한 생태문화적 관습

지마이마 라코 (피지, 피지국립대학교 공학과학기술대학 응용과학부)

생태문화적 관습은 전통적인 식량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생태학적 변화, 문화적 풍습, 그리고 생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지혜와 지식을 제공한다.

피지에서 이것은 전통 음력(*볼라 바카비E/vula vakavity*)과 가치체계에 기반한다. 이 전통 음력은 식량시스템에서의 생태학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피지인들이 통제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음력은 관련 활동을 포함한 전체 식량시스템에서 월별 식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가이드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농수산물의 식량시스템에서 관찰되는 생태학적 변화를 통해 발견된다.

전통 음력은 특정 음식이나 식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연간음력주기와 결부시킨다. 연간음력주기는 한 가지 식량이 과사용되거나 과수확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다양한 식량 자원을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자원의 성장을 위한 회복과 환경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음력주기는 래빗 피쉬(*볼라 이 누카 레부vula i nuqa levu*(대규모 래빗 피쉬 떼)와 함께 풍성하게 시작되어 *볼라 이 세부vula i sevu*(죽장과 교회에 바치는 첫번째 수확), *볼라 이 켈리켈리vula i kelikel*(얇고 기타 뿌리 채소의 수확 및 보관), *볼라 이 가사우vula i gasau*(갈대꽃 개화), *볼라 이 도이vula i doi*(알피토니아종인 도이 관목의 개화), *볼라 이 웨레웨레vula i werewere*(얇을 심기 위한 잡초뽑기), *볼라 이 추키추키vula i cukicuki*(얇 심기), *볼라 이 세니드랄라/카와카와vula i se-ni-drala/kawakawa*(목재용 나무의 개화와 다금바리의 산란), *볼라 이 바바카다vula i vavakada*(얇 발아), *볼라 이 발롤로 라이라이vula i balolo laila*(식용 바다벌레(갯지렁이) 첫 출현), *볼라 이 발롤로 레부vula i balolo levu*(식용 바다벌레(갯지렁이)의 집단출현)로 이어지고, 다시 래빗 피쉬와 함께 끝나지만 이 때는 *볼라 이 누카 라이라이vula i nuqa laila*(작은 래빗 피쉬 떼)로 래빗 피쉬의 양이 적다. 각 음력 계절의 이름은 이러한 농업 및 해양 자원들,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는 다른 해양 및 육상 자원에 대한 접근과 육성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토지의 일부 또는 공동체의 어장을 폐쇄하는 *타부 tabu*(수확 금지) 선언, *부치부치vucivuc*나 *야비라우yavirau*와 같은 전통적인 농사 및 고기잡이 방식의 사용, 해안지역과 고산지역 사람들 사이의 물물교환제도도 다양한 식량 자원의 번식과 재배는 물론 물자의 교환과 공유를 늘리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적응 기법들로 활용되는 생태문화적 가치체계들이다.